



# 濁流清論

제72호 2023년 6월 1일

발행인: 이 재 호 / 편집: 편집위원회

## < 알려 드립니다 >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교수협의회 어깨 위에 선 교수회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 재 호

##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1
- 교수협의회 어깨 위에 선 교수회	
<u>특집</u>	5
- 2023-1학기 신입 교원 소개 (가나다순)	
<u>소통과 담론</u>	15
- 교수협의회 20년, 교수회 16년, 탁류청론14년	
<u>교수들의 건강칼럼</u>	27
- 적당히 살찌는 게 건강한가?	
<u>저서 소개란</u>	29
- 태양을 먹다(역자 김홍표)	
<u>소식</u>	30
- 2023-1 신입교원 환영간담회 개최	
- 128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 대학평의원회 소식	

3월에 교수회 의장이 된 후 우리 대학의 고위보직자들과 만날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침 올해가 개교 50주년이어서 더 그러했겠지요. 대화 중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고위보직자인만큼 학교 사정에 밝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를 교수협의회(교협)로 지칭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수협의회가 아니라 교수회'라고 애써 수정을 했지만 어떤 때는 타이밍을 못 잡아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수회와 교수협의회를 혼동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198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 김덕중 전 총장이 복귀하는데 대한 반대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대학·의료원으로 하여금 부채를 장부에 올리도록 요구한데 대한 반대로 우리 대학이 격랑에 휩쓸렸을 때 교수협의회가 반대 운동의 중심역할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본교와 의료원을 막론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모여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수협회의 존재감이 컸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2007년에 교수협회가 교수회로 바뀐 후에도 교수회를 교수협회로 지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교수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2006년에 있었던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진 중 1/4을 개방이사로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기능을 위시해 사립대학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평의원회에는 교수·학생·직원·동문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학생대표는 학생회가 직원대표는 직원회가 동문대표는 동문회가, 마찬가지로 교수대표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구조로 당시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임의단체이던 교수협회가 학칙에 근거한 기구인 교수회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당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던 교수협회는 내부적인 고민과 토론 끝에 교수회로 전환하기로 하고 교수회 규칙에 의거한 조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교수회가 출범하는 와중에도 조심스러운 마음에 교수협회 조직은 해산하지 않고 교수회 조직이 필요시 자동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교수협회 회비로 조성한 기금도 유지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교는 당시 조성됐던 기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유지했고 의료원은 원하는 분들에 대해 교수협회회비를 계속 징수하는 것으로 유지했습니다)

교수회로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재정에 있어 (본교의 경우) 회비로 운영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 이런저런 학교 행사에 교수회 의장이 초청된다는 점 등 표면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아마 가장 큰 변화라면 교수회 출범의 계기가 되었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활동, 이를 통한 개방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협회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었지만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배경하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교수회는 제반 규정과 규칙에서 그 영향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능은 학칙의 개정, 발전계획의 승인 등 일부 사항에 국한되었고 정작 학교의 운명이나 구성원의 안녕과 큰 관계가 있는 예결산은 자문사항이며, 큰 건물의 신축결정이나 다양한 규정, 규칙의 개정 등은 소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평의원회는 일종의 위원회 조직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쉽고 행정파트에서 보여주는 자료 이상의 이해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게 되는데, 심의할 안건의 범위도 협소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라는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학교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평의위원회의 개방이사 추천 기능도 우리 대학 법인의 꿈수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방이사 추천을 위해서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섯명으로 위원 구성을 하면 대학평의위원회가 세명, 법인이 두명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법인 산하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자동차대학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법에는 두 대학의 대학평의위원회가 협의하여 대학평의위원회 몫의 위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법인 정관에는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두명, 아주자동차 대학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한명을 추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학평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이사회에서 먼저 논의하여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그냥 그렇게 굳어진 것입니다. 아주자동차 대학은 그 규모와 상황을 생각할 때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법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돼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지만, 답은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관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정작 정관개정 시한은 못박지 않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추천위원회에서는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낙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개방이사 선임에 있어 법인이 추천도 하고 결정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첫 번째 개방이사 선임을 제외하고 10여년간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감사 후보가 한번도 선임되지 않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무엇보다 개방이사제 시행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2020년 우리대학 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이 개방이사가 되는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현재의 구조는 개방이사 선임에 있어 구성원의 뜻이 반영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민망한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제한점으로 인해 현재의 교수회 체제는 '교수들이 가장 주요한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이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회가 어느 정도나마 효용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과거 활발히 활동했던 교수협의회의 유산이 더해져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에 중요한 이슈가 터졌을 때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결국 교수협의회를 지지해 주셨던 그 힘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총장 선임에 있어서 법인과 카운터파트가 되어 제도 자체에 대해 합의하고 실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매년 총장 직무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교육과 인사제도 등 대학의 주요 사항에 대해 대학본부와 의논하고 교수님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문법만으로 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학칙기구가 된 교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의기구였던 교수협의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율의 유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수협의회가 아니라 교수회'라고 애써 수정을 할 것이 아니네요. 오히려 교수협의회

의 유산에 더욱더 힘입어 교수회가 '가장 주요한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대학에 관심을 가지며, 결국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회를 교수협의회라고 잘못 말씀하는 분을 만났을 때, 이제는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교수협의회에 기반을 둔 교수회입니다"라고요.



특집

## 2023-1학기 신입 교원 소개 (가나다순)

교육대학원 김민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 신입교원 김민정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상담 수련을 거쳐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심리학 박사로서 그리고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상담 및 상담자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연구는 주로 성격과 적응적 행동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는데, 특히 암묵적 자존감이 인간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로, 학교상담, 상담자 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심리상담의 실제>, <효과적인 치료전략 선택하기>, <성격심리학>와 같은 교재를 집필 또는 번역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은 높은 전문상담교사 임용 합격률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목하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학과 김 서 현

##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 프랑스 계몽사상에 대해 배우면서 서양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서양 근대 사상사와 과학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특히 19세기 유럽에서 과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각자의 학문적 경계선을 찾아가던 과정에 매력을 느꼈고, 이런 학문들이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정책, 사회운동 등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원 시절 컴퓨터 과학자들과 협력해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디지털 방법론을 사용한 역사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2) 대표 저서 및 논문

"Goethe and Candolle: National Forms of Scientific Writing?" *Theory in Biosciences* 141.3 (Sep. 2022): 321-338. <https://doi.org/10.1007/s12064-022-00376-8>

이 논문은 자연적 범주(natural category)와 국가적 범주(national category)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낭만주의 개념의 일환이자 연장선으로 이해합니다. 독일의 문학가이자 과학자였던 괴테와 프랑스에서 활동한 과학자 칸돌레는 상당히 유사한 식물학적 이론과 개념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과학자의 텍스트를 디지털 방법론을 사용해 세밀히 비교/분석했습니다. 이 논문은 괴테의 과학이 19세기 프랑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낭만주의에 기반을 둔 과학이 그 시대 유럽 지식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자연과학적 범주와 국가적, 민족적 범주가 지식인사회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알아봅니다.

## 3) 대표 직함

아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외에 다른 직함은 없습니다.

## 4) 부캐

저는 한때 동화책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꿈을 키웠고 현재는 취미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본캐와 부캐를 합쳐 제 그림을 곁들인 어린이를 위한 과학사 책을 펴내는 게 제 버킷리스트 항목 중 하나입니다.

## 물리학과 김 성 헌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봄부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서 새로 함께하게 된 김성헌입니다. 아주대학교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아주대학교에 오기 전에 물리학을 전공하며 일본 히로시마대학교에서 학사, 도쿄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한국 기초과학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 합류해서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학사과정 중에 처음 접한 물리학 전공 실험 과목에서 흥미를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도 고체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실험을 통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양자소재에서 발현되는 재미있는 현상들의 근원을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체 물질에서는 물질 내부의 전자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이나 위상학적 특성에 의해 초전도 특성과 같은 흥미로운 물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많은 양자물질의 전자의 움직임이나 동역학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물성의 발현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연구 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뛰어난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힘써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김 신 권

반갑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조교수로 임용된 김신권입니다.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저는 의학사와 의료 인류학, 의료 인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인문학을 배운다는 것이 좀 낯설어 보일 수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의료인문학은 의학과 의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주대 의대는 시작부터 의학사와 의료인문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런 좋은 전통을 잘 이어받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과 역사를 공부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드류대학교와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미국학, 종교학, 역사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의료인류학과 의학사를 공부하여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약 15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고려대 의대에서 연구교수로 있었고, 2019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의 학문적인 관심사는 역사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넓게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의학을 이해하고 동시에 새롭게 해석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의학이 가진 인간중심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문학자로서 의과대학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자극이 되는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아주대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논문>

Kim, Shin Kwon. "Contesting a Medical Gaze: 'The 1888 Baby Riot' in Seoul -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Collis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62. no.4. 2022.

김신권, "의학전문직업성의 변화와 여성역사: 역사적인 관점의 연구." *문화와 융합* vol. 43 no. 6, 2021

김신권, "기독교 성서의 치유 전통과 생의학: 의료인류학적 관점에서." *종교연구* vol. 81 no. 1, 2021.

김신권, "감염병과 대유행: 인문의학적 관점." *문화와 융합* vol. 43 no. 2, 2021.

Kim, Shin Kwon. "Hierarchy, Pollution, and Anxiety in the Law of Manu."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1 2021.

Kim, Shin Kwon. "Finding New Themes: Otherization, Religion, and the Body."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2 no. 7, 2020.

Kim, Shin Kwon. "Is Dirt Sin? Or Is Sin Dirt? The Germ Theory of Disease and the Early Formation of Concept of Sin in Korea."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63 no. 2, 2020.

## 교통시스템공학과 김 의 진

안녕하세요. 교통시스템공학과 신임 조교수 김의진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으로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와 싱가포르국립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올해 3월에 아주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수요예측, 통행행태 분석 등 교통계획 관련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계획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공공 혹은 민간 교통서비스에 투입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로 기존에는 한정된 데이터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 카드, 스마트폰 GPS, 네비게이션 등 통행 빅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면서 Human Intelligence가 아닌 Data Intelligence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Data Intelligence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교통계획의 이론과 전문가적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주로 연구합니다.

인공지능 융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섭적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아주대의 비전에 맞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및 연구과정에서 기존 교수님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시스템공학과 김 태 용



안녕하세요.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신입 조교수 김태용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으로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좋은 기회가 닿아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 연구분야는 '구조신뢰성 및 재난 레질리언스 평가'로서 자연/인공재해와 건설시스템 인프라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모델링하여 인프라의 손상과 기능저하,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여 재난에 안전한 도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입니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건설시스템의 파괴 및 붕괴를 막는 것을 넘어 손상된 시스템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레질리언스' 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모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건설 분야의 효율성, 안전 등을 위해 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활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도를 적은 계산비용으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센싱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예측된 노후화 상태가 고려된 구조물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기존 고전역학과 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여, 아주대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과 사회 진출을 돕고 아주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을 보며 많이 배우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주대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좋은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공학과 김현균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신입교원으로 임용된 김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금융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주가의 분포를 미분방정식으로 모형화해서 여러 파생상품들의 수학적 해를 찾는 연구를 해왔고, 요즘은 수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방법론을 융합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을 연구해왔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은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인만큼 앞으로는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해드리자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생성신경망을 활용해 주가 프로세스 및 여러 잠재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 분포를 학습함으로써 파생상품 가격 결정을 기존 방법론 대비 수백 배 빠르게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산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수백 배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활용성이 상당히 큽니다. 계산에 수 일 또는 수십 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이론들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초단위로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 초단타매매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수하고 실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향하며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어영문학과 백현아



안녕하십니까? 영어영문학과 신입교원 백현아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스톤브룩 뉴욕주립대(Stony Brook University) 언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언어인지두뇌연구실에서 약 2년간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올해 3월에 아주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실험적, 전산언어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제 2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사용하는지를 연구합니다. 대표 논문으로는 사람들이 여러 뜻으로 해석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을 듣고 이해할 때 문장의 억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본 연구[Baek, H. (2022). Prosodic cue weighting in the processing of ambiguous sentences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51(1), 158-167.]와 문장을 읽을 때 독자들이 주변시를 통해 다음 단어의 어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사한 연구[Baek, H., & Choi, W. (2022). Parafoveal processing of underlying phonological information during Korean sentence reading. *Attention, Perception, & Psychophysics*, 84(5), 1411-1416.]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뿐 아니라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학과 이인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신임 교원 이인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학사를 취득했고, 2022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프랑스 NE-OMA 경영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3월부터 아주대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된 연구 분야는 인적자원관리(HRM)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조직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종업원 이직의 선행요인과 결과, 조직 내 다양성의 기능과 함의, 종업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적자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특성(기업지배구조, 가족기업 여부)과 인적자원관리의 관계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 분야 SSCI학술지에 총 4편의 논문을 등재했습니다. 먼저, 인적자원관리리뷰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에 등재된 논문 (Lee & Kramer, 2016)에서는 국가문화와 조직문화의 관계를 신제도이론과 경직성-유연성 문화차원 (cultural tightness-looseness)를 통해 이론화 했습니다. 사회경제리뷰 (Socio-Economic Review) 논문 (Jung & Lee, 2021)에서는 미국기업들이 금융시장의 애널리스트가 설정한 목표주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022년에 등재된 조직행동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논문 (Pak, Kramer, Lee, & Kim, 2022)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근무시간이 일-가정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의 매개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문화와 전략적 경영 (Cross-Cultural & Strategic Management) 에 등재된 논문 (Lee & Kramer, 2022)에서는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기제인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이라는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수록 노동의 의미와 인적자원관리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과 '일의 의미'(work meaningfulness)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이종민



안녕하세요,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입교원 이종민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2022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 졸업 후 삼성전자 Foundry사업부 IP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아주대학교 지능형반도체공학과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하드웨어 보안 IP설계, 저전력 디지털 회로 설계이며, 뉴로모픽 반도체 회로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보안 회로 분야에서는 사물 인터넷 보안을 위한 물리적 복제 방지 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저전력 디지털 회로 설계 분야에서는 저전력 플립플롭 설계를 통해 집적회로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뇌의 연결성을 모사하기 위해 Field Programmable Neural Array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능적이고,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지능형반도체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처럼 좋은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저서 및 논문>

Jongmin Lee, Minsun Kim, Minhyeok Jeong, Gicheol Shin, Yoonmyung Lee, "A 20F2/bit Current-Integration-Based Differential NAND-Structured PUF for Stable and V/T Variation-Tolerant Low-Cost IoT Security,"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JSSC), Invited Paper to the Special Section on A-SSCC, Oct. 2022.

Jongmin Lee, Donghyeon Lee, Yongmin Lee, Yoonmyung Lee, "A 354F2 Leakage-Based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 with Lossless Stabilization through Remapping for Low-Cost IoT Security,"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JSSC), Feb. 2021.

Jongmin Lee, Donghyeon Lee, Yongmin Lee, Yoonmyung Lee, "A 445F2 Leakage-Based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 with Lossless Stabilization through Remapping for IoT Security," IEEE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ISSCC), Feb. 2018.

소통과

담론

## 교수협의회 20년, 교수회 16년, 탁류청론 14년

(편집자 주: 탁류청론 편집위원회에서는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사 통사를 집필한 김태승 명예교수와 교수회의장을 지내고 탁류청론을 창간을 주도한 강명구 명예교수를 모시고 이재호 교수회 의장, 김홍표, 정태선 편집위원의 대담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담 말미에 인사차 들른 김상배, 나상신 교수의 발언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가급적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 ▶ 이재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50주년사를 편찬을 했는데요. 김태승 교수님께서 통사를 집필해주셨습니다. 집필하시면서 우리 아주대학교의 과거를 한 번 돌아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 ▶ 김태승: 아주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자원 동원과 활용의 최적화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지요.
- ▶ 이재호: 풍부하지 않으니까.
- ▶ 김태승: 맞아요. 교수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자원도 부족하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50년사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재정 부족에서 기인되는 최적화는 이미 대학 출범 초기부터 현실적 문제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예컨대 초대 학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대학 운영에 임하다가 갑자기 중도 사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식 기록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한 은

퇴 교수에 부탁해서 당시 재직했던 분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대학건설 초기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교수/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그에 대해 책임을 느낀 학장께서 스스로 물러서신 거지요. 당신이 나서서 우수 교수를 유치해 왔는데, 봉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강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지요.

- ▶ 이재호: 아직 대우학원 전이지요.
- ▶ 김태승: 그렇죠. 유신학원 시절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프랑스에도 알려지고 한국 정부에도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대우에게 학교 운영을 넘기게 한 거지요.
- ▶ 김태승: 그 이후에도 1981년 이후 1999년까지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외환 위기 이후 다시 어려움에 처하면서, 최적화는 대학 구성원들의 삶에 내면화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최적화 문화는 대학 규모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집정원이 작은 대학이고, 그에 따라 교수/직원의 수도 제한된 상황에서 외부 대학과 경쟁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최적화 문화에서 학문 융합에 대한 관심도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예컨대 교수 수에서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 우리 대학 상황에서 대형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전공을 넘어서는 학문 간 연대가 필수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이 아닌

가 생각돼요. 관련 여러 전공에서 연구를 잘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융합과학 연구 집단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연구비를 수주하여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 지향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다음으로 의사결정체제의 합리적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존재가 아주 대학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1987년(현대사에서는 이 이후의 시대를 87년 체제라고 부르죠) 아주대학에서도 교수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교수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출범 초기에는 참여율 저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정착이 되면서 학내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집단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구로 역할을 수행해 왔어요. 교수협회의 역할이 특히 주목 받았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었던 일이 1993년 초 김효규 총장의 총장직 3회 연임 문제와 관련된 교수협회의 활동이었어요. 당시 교수협회의 회칙에는 “총장 추대와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당시 총장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대우학원의 설립자 김우중 회장은 병원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였던 총장의 교체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생각에서 직접 전체교수회의에 참가하여, 의대/병원 관련 이외의 타 단과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추가지원과 김효규 총장의 임기는 병원 설립에 필요한 2년으로 제한한다고 약속함으로

써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의 진행은 아주대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산을 남겼어요. 그것은 임의 단체인 교수협회의 회칙을 근거로 진행된 교수집단의 의견을 재단이 무시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그래요.

▶ 이재호: 그 전에 총장 선임에 있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 김태승: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재단과 교수들 사이에 충돌할 수 있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근데 그 시점에 재단이 교협의 역할을 인정한 거지요. 인정하고 그 의견을 중요시 여겨서 김효규 총장의 임기를 4년이 아니고 2년으로 자른 것. 또 그 약속을 지켰고, 2년만 김효규 총장이 더 하고 물러났으니까. 말하자면 구성원들의 의견이 소통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등장하게 된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 강명구: 김효규 총장이 언제 물러나셨지요?

▶ 이재호: 95년에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 김태승: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1999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진행된 총장 퇴진운동이었어요.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김덕중 총장이 부임한 거예요. 올 때 교협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쳤고, 구성원들은 설립자의 가족이 왔으니까 재정지원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실질적 재정지원은 거의 없었고, 총장 연임에 성공한 뒤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정부에 장관으로 나갔다가, 마치 자기 자리를 맡겨 놓았다가 되찾는 것처럼 총장 복귀를 시도하게

되면서 갈등이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축적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자녀의 대학원 입시 부정문제, 건축비 과다 산정 문제 등이 모두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죠. 아주대학이 성장 과정에서 학교법인 대우재단의 후광에 힘입은 바가 컸음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질적 재정지원이 특히 의과대학과 병원을 제외한 영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던 문제였어요.

당시 교수협회의 보고회에서는 팔달관 등의 신축 건축비가 당시 강남 고급아파트 건설가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땅값, 시설비 등에서 장점이 있는 대학 건물의 건축비가 것처럼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 ▶ 이재호: 우리가 그 당시에 보고회에서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게 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죠.
- ▶ 김태승: 보고회 때 그걸 레포트를 했지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의사소통과 토론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쨌든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총장이나 누군가가 재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수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발생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귀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버넌스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김덕중 시대에 총장 직속으로 되어있던 행정 부서들이 있었어요. 총장이 직접 관리하는, 학생선발본부, 사회진출본부, 대학

발전 본부, 홍보실 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오명 총장이 전부 정상 기구화를 하지요. 총장 직속기구에서 일반 행정부서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교수들이 정말 힘들게 싸운 결과이죠. 그런 의사결정 체제의 합리성에 제일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좋은 점은 뭐냐면 희생자가 없었다는 거죠.

- ▶ 강명구: 아무도 해직된 교수들이 없었지요.
- ▶ 김태승: 총장만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이 됐지요. 이건 사립대학의 역사에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 ▶ 강명구: 그런 점에 있어 우리 아주대학의 재단은 아주 무도한 수준은 아니었지요. 수원시 소재 사립대를 위시한 여타 문제된 사립대학이 했던 것에 비하면 양반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었던 타 사립대 교수들과 얘기해보면 그런 점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 ▶ 김태승: 맞아요. 그런 점도 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처음에 김우중씨의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충훈씨, 김준엽씨 이제 외부 명망가들이 이사장을 맡았어요. 친족 중에는 설립 초기에 김덕중씨가 간사를 잠깐 했었던 게 거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 실무 역할만 하고 그 사람은 일단 떠났고. 근데 이제 윤원석씨가 오면서 정책의 변화가 딱 일어난 거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원은 안 하고 재단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정책 변환이 이사장 임명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김준엽 이사장의 퇴임이 굉장히 기묘한 형태로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지는 않았는데... 내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연령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어음 문제 때문에 당시 구성원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위 '견질어음' 문제 말이에요.

▶ 이재호: 네. 천 억짜리.

▶ 김태승: 네. 천억짜리 어음에 재단이 서명을 해줘야 그걸 은행에 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준엽 이사장이 그것을 거부해서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퍼져있었죠. 그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되거든요. 사실 그러한 보증은 위에서 이야기한 공사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수들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생각했으므로 모기업의 요구에 동의하기 어려웠죠. 사실 재단 모기업의 부채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주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런데 형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래는 자기들이 맡기로 한 건축비였어요 그게. 자기들이 해결하기로 한 그 건축비가 마치 부채인 것처럼 계정에는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장부상에는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 공사비를 대학의 부채로 하고 그것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모기업의 부채를 대학이 떠안는 형태가 된 거죠.

▶ 이재호: 사실은 2000년대 들어와서. 그중에 일부인 313억을 병원에서 장부에 올려라 요구 했는데 그걸 이제 거부했죠. 당시 병원의 고위 보직자들이 거부하고 돌아와서는 전체 교수 회의를 연 다음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그러고는 싸웠죠.

▶ 김태승: 예 맞아요.

▶ 이재호: 나중에 가서는 결국 오명 총장 오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수영만 땅인가 팔고 해서 원금은 재단에서 갚았구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료원이 부담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외에 병원 개원

하면서 970억인가 초기 병원 운영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부채로 충당했는데 그것을 의료원교수들이 일해서 갚았죠.

▶ 이재호: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에 학교가 격랑에 휘말렸을 때 조교수 연배의 젊은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대학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문화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 강명구: 제가 그런 요인들에 더하여 한 가지 덧붙이자면 90년대 초반부터 해외 유학을 마친 70학번 대 젊은 교수들이 단기간 내에 대거 충원된 것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 김태승: 그거는 여러 가지로 따져 볼 수 있는 게 학교 시스템 자체 안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라면 연장자 앞에서 그것을 스스로 감추고 억제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특히 교협 사무실에서는 특히 허용됐고. 교협은 그런 점에서 완전히 열려있는 시스템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학이 주인이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 최적화하고 합리적 거버넌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어쨌든 위기 상황을 여러 차례, 봉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종합 대학으로 승격하고 IMF가 왔는데 자립 기반을 만들고 그래서 그 자립기반을 만든 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인제 서문호 총장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 대량 지원을 그때 얻어내기 시작했거든. 평가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안재환 총장 시절에 보면 완전히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지. 아 이제 재단 없어도 된다. 재단 없어도 대학은 충분히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진 거지. 로스쿨 유치나 이제 그 약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대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런 대학들이 왔을 때 아주대학의 재정이 감당 할 수 있느냐. 등록금 수익으로 따지면 절대 이걸 될 수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확신들이, 의식하진 않았지만, 그걸 의식한 사람들은 없겠지. 당연하게 여겼을 테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감들이 막 생긴.

▶강명구: 자신감 이라는 요소는 확실히 중요했습니다. 법전원 만들 때 예를 들어보지요. 당시에 법학과는 사회대 내의 한 전공이었습니다. 법학과가 독립하여 법전원이 되면 사회과학대학의 규모가 축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대 구성원들은 흔쾌히 법전원 설립에 앞장섰지요. 의대와 로스쿨이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을 공유한 겁니다.

▶김태승: 그때 인사위원회가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열리고 그랬어. 교수 데려오려고.

▶강명구: 아주대학의 큰 틀 하에서 자기 전공분야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한 집단의 이익보다는 학교가 커져야 한다는 그 커다란 방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승: 미래를 보자.

▶김태승: 그러니까 99년 때도 보면 대체로 70년대 전성기 학번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였고. 그 다음에 본교 아주대 출신 중에서도 열심히 뛰었고, 그 다음에 68세대들이 교협을 처음 만들 때 기여한 분위기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국가정책 규정 중에 우리나라 대학가 규정이 너무 강해. 특히 등록금 못 올리게 한 다음부터는 빈약한 상황을 전부 국가 재정지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돈을 주는 걸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학 재단은 어쨌든 사립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해. 공공성의 측면보다는 이제 사유재산으로 보는 측면이 강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주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젠데.

▶이재호: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학재단을 공익성이나 공공성 보다 사유재산의 관점으로 보는 이게 지금 우리 재단에 있어서 심화됐다고 보세요?

▶김태승: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심화됐다고 봐요. 돈 버는 데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본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건 별로 개선된 게 없어. 돈이 요새는 대학경쟁력에서 중요한 건데 대학이 독자적으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지속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대학은 그게 없으니까. 밖에서 보면 경쟁성 없이 연구비나 재정지원 사업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 혁신성의 최적화와 거버넌스가 최근에 점점 뚫리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99년의 유산이 약효가 끝나가는 거죠. 그러

니까 이제 교수들은 굉장히 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어. 어쩔 수가 없지, 경쟁 체제니까. 그거를 넘어서 공공성 문제를 고민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랜드 플랜을 만들기가 어려워. 대학이 전체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수많은 외부 사회의 도전에 대해서, 대학이 지속 가능하려면 뭘 해야 할 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 그건 회의 할 때 내가 많이 느꼈거든? 주니어 교수들하고 우리가 밖에서 보는 대학하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강명구: 이런 추세는 굳이 아주대학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타 대학 교수들도 인정하듯이 요즘 주니어 교수들은 우리 세대하고는 여러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승 교수가 말씀하신 소위 99년 체제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약해졌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김태승: 세 틀은 유지를 했어요. 재단, 집행부, 교수사회. 합리적인 의견들이 나오면 집행부나 재단도 소화하는 방식으로. 어느 일방이 독점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죠.

▶이재호: 2007년에 교수협의회가 교수회로 바뀌었잖아요. 교수회라는 체제가 과연 그런 어떤 활기? 혹은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담론을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탁류청론도 지금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김태승: 내가 볼 때는 탁류청론을 만든 것이 사실은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그

런데 이제는 효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원론적인 말씀은 아무도 귀를 안 귀 올리거든. 그게 어려운 점이야.

▶강명구: 그런 면에 있어서 교수회의 역할과 <탁류청론>이 교수회 활동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교수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교수들이 조직해서 대학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평의회 의장을 교수회장이 맡는 것이 그 중요한 예가 되겠지요. 재단의 전횡을 막고 대학 행정의 민주화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수회가 교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날 때 이에 대응하고 때로는 급여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 두 기능들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중요성은 교수회가 주도하는 대학의 공적 담론 생산 기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나 대학 행정이 제기하지 못하는 (혹은 안하는) 중요한 질문, 즉 '대학은 대체 왜 존재하는가?' (혹은 다른 말로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교수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진부해보일지 모르겠지만 대학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면 이런 질문들은 더욱 유효해집니다. <탁류청론>은 이런 대학에 관한 공적 담론을 추구하는 지면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제가 교수회 의장을 맡았을 때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 만든 <교수 윤리 강령>은 바로 이런 의도의 산물이었습니다. 애써 주신 사학과 조성을 명예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

하고 싶습니다.

- ▶ 김태승: 이익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지막 역할을 교수회가 해야 된다. 교수회 규정을 만들 때 총장하고 대등한 관계로 만들려고 총장이 소집하면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수회 의장이 소집하면 교수회 의장이 이제 의장이 되는 그런 규정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본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 ▶ 강명구: 이제 교수회가 대학의 공식기구화 되었으니 대학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더 나아가 대학 구성원들이 같이 소비하는 데 있어 더욱 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 이재호: 공식기구로서 인정받는다는 측면은 나아졌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역할을 교수회가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내부적으로도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냐면 교수회는 교수들의 복지나 교수들이 알고 싶어하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커요. 중간에 잘 해야 할 텐데.
- ▶ 강명구: 이해가 갑니다.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중요합니다. 책임시수 조정문제, 무리한 승진 요건 강화로 교수사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 10 여년 이상 고정된 급여 문제 등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교수회가 가졌는가는 회의적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자면 막상 구체적 사안(이를테면, 총장 선임 절차, 재단 비상임 이사 선출 문제 등)에 부딪혔을 때,

재단의 무소불위 앞에서 교수회의 법과 제도적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자명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줄곧 주장한 것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참여입니다. 의견 개진 이던 교수 총회 참석이든, 대의원 활동이든, 피케팅이든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는 교수회는 허깨비입니다. 아주 잘해봤자, 참여가 없다면 교수회는 '빛 좋은 개살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참여도 않으면서 힘도 없는 교수회에 무엇을 해주기 바란다면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대학정신입니다. 교수회는 인원, 자원, 조직, 규정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재단이나 본부에 비하면 그들을 견제하기가 족탈 불급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명분에서 나옵니다. 대학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커다란 철학적 그리고 실천적 명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정신으로 잘 버려진 참여'가 없다면 교수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과 대학별 이해도 다르고 연구실 문 닫아 걸고 각자도생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대학사회는 손쉬운 각개격파의 대상입니다.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 우화의 소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 ▶ 이재호: 탁류청론을 만드신 것도 사실은 그런 배경이셨잖아요.
- ▶ 강명구: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지요. 2009년도면 서문호 총장님 시절입니다. 최초의 본교 교수 출신 총장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차기 총장 후보로 재단이 은근슬쩍 갖은 편법을 써가며 재단이 여러 이유로 선호하는 인물을 내려 보내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담론의 장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탁류청론>입니다. 돌이켜 보니, <탁류청론>을 창간하여 대학의 주요 사안인 총장 인사문제에 견해를 내어 관철시킬 수 있었던 힘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99년도 무렵 교수사회의 단결된 경험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재단이 함부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 할 때 대학정신에 근거해서 돈 문제와 인사문제를 따졌고 그 해결방식을 교수사회가 참여 하에 모색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살아남아 아직도 아주대의 인사문제 자율성은 여타 사립 대학 교수들의 부러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과대학 교수 한 명 재단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대학정신을 되돌아보며 행동해야하는 커다란 규율입니다.

▶ 김태승: 아주대학이 불패의 신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거든. 왜 저기는 맨날 돈 쓸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수들이 또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나와서 밤새고 일하고 데이터 모으고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가능한 문화가 그게 가능한 대학이 다른 대학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대학은 그게 문화가 돼 있어. 보직을 맡거나 하면 그걸 해야 돼, 그런 일들을.

내가 아이디어로 하나 제의를 하자면 교수회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여론조사 같은 걸 전 교수 상대로 해서 좀 어떤 부분은 매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주제로 어떤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로 관련 전

문가들 활용해서 설문지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교수 사회에 관한 연구를 리서치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책도 제안하고 그걸 통해서 변화도 추구를 하고. 교수사회도 데이터 기반, 분석 기반으로 우리 실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스스로가 좀 인식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결과를 분석해서 제공하고.

▶ 강명구: 저도 덧붙여 하나 제안합니다. 교수회가 아주대학교의 공식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좌담회 준비하면서 <교수윤리강령>을 교수회로 들어가 찾아보려하니 연결도 안 되고 존재하지도 않고... 정말 놀랐습니다. <탁류청론> 같은 교수회 신문도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서재에 들어가 먼지 털어 옛 자료를 뒤져보았습니다. 교수회 활동과 소식을 누구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으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수사회 뿐 아니라 직원 분들과 재학생들도 손쉽게 교수회의 활동을 접할 수 있게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시급하고 논란이 많은 대학의 정책에 대해 교수회의 견해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 김태승: 독일의 사회학자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검색해 보고 거기 없으면 없는 거야.

▶ 김태승: 그러니까 그래서 이벤트를 좀 기획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걷기 대회라든가 뭐 이

런 것이어도 좋은데 그런 본부하고 좀 서로 협력해가지고. 게시판도 좀 열어놓고. 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맞아 게시판이 없어져 버린 거야.

▶ 이재호: 게시판을 최근에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1번으로 인사말을 써놨는데 그다음에 제가 맨날 들어가서 2번글이 달렸나 살펴 봅니다. 이게 한 열흘 좀 넘었는데 아직 이네요.

▶ 강명구: 그 말씀 들으니 저도 전임 교수회 의장으로서 무언가 어떤 식으로 교수회를 위해 도움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 이재호: 선생님은 글을 많이 쓰셨죠.

▶ 강명구: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사정을 잘 아니 마다하기 힘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투고한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가장 많이 쓴 원고는 물론 보고문이었습니니다. 대학 평의회 결과 요약보고문은 물론 회의가 끝나면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 전체 교수분들께 자세하게 팩트 위주로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얼마나 읽었는지는 자신이 없지만요. 반면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전임 비대위원장님이셨던 이상혁 교수님 돌아가시고 49재 다녀오고 나서 쓴 추모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거의 한 달은 이리 저리 구상해서 썼는데 아마 신문이나 외부 기고문도 이렇게는 정성을 안 들였을 겁니다. 이제 정년 퇴임한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역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수 십 년 가꾼 오래된 정원이 있는데 여기로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을 초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교수회 관련

이거나 기타 회의 장소로도 좋겠지요. 아무리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만나서 기도 굽고 차도 한 잔 하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더 갖게 되기 마련이니깐요. 삶이란 게 수학공식보다는 예술에 가깝지 않을까 해서 한 번 해 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학 현안에 대해 입바른 소리와 투박한 행동들을 해뒀음에도 무사히 정년을 마치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마움 표시도 있겠지요.

▶ 김태승: 그 다음에 이메일을 전체 교수들한테 발송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서 소식을 계속 던져주고 뭐 보든 안 보든. 명예교수들한테도 돌려도 돼요. 학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보니까.

▶ 이재호: 뉴스레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류청론에서 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 탁류청론의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깊어졌어요.

▶ 강명구: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좋은 글들은 읽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대에도 외부 기고문 보니 전공 분야에 대해 필력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글 쓰려면 자료도 보고 생각도 하고 해야 하니 당연히 노고가 듭니다. 그래도 좋은 필진을 섭외하고 전문분야의 생소한 글들은 접근이 수월하도록 교정 기능이나 편집 도우미 기능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면 더 좋겠지요. 물론 이에 더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한 홍보 노력의 강화도 중요합니다.

▶ 이재호: 예. 교수회 홈페이지는 다행히 본교 홈페이지와 연결했습니다.

▶ 강명구: 여담입니다만 <탁류청론> 작명 에피소드입니다. 창간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소설이 채만식의 <탁류>라는 1930년대 일제 치하 수탈의 역사를 다룬 작품이었어요. 세상사가 탁류처럼 거치니 여기에 맑은 샘물 같은 공론들을 한 줄기 흘려보내자고요. 물론 제호(題號)에 대해 '당신들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더럽다는 말이나'는 오해도 받았지만 명색이 지식인 사회인 대학에서 공적 담론을 위한 장은 하나 정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대학이 결국은 생각하고 연구해서 글로 먹고 사는 집단인데 당연하지 않나요? 다만 세상 변하는 추세에 맞추어 포맷의 변형이라던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하면 금상첨화겠지요.

▶ 김태승: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은 좀 발굴해서 공론의 장으로 뭐 이끌어 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뭐라고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을 내가 아니까. 교수들도 엄청 교수 생활하기 어렵고, 일은 일대로 많고, 연구는 연구대로 해야지 교육도 훨씬 까다로워졌지.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바쁜 사람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한 시간 한 자락을 잘라 갖고 여기도 쓸 수 있겠냐고. 그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 강명구: 듣고 보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역올하다할까 혹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 교수회에

대한 색깔론적 시각입니다. 대학문제에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거나 시국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불편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시국선언 등의 유통이 교수회 메일을 통해 유포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모양입니다. 누구든 견해에 상관없이 대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들이라면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할 필요가 있겠지요.

▶ 김태승: 거짓말이 지배하는 사회의 문제점은 거짓말을 유통시키기 때문이 아니고 사회의 방향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돼버리는. 아주대학이 지금처럼 상황이 꼭 그렇다는 난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로 잘 돌아갈 때는 교수회는 나설 일이 없거든. 근데 아주대학교 역사를 봐도 문제가 있을 때는 교수회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들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의기관이거든. 이것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면 재단도 무시할 수 없고 본부도 무시할 수 없고. 근데 그러려면 평상시에도 그런 내공을 좀 키워야 되는데 대의원회가 적당하겠죠. 전체 교수는 어렵잖아요.

▶ 강명구: 동감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보면 단과대학 대의원들의 선출이나 역할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돌아가면서 선출하니 의무감도 떨어지고 단과대학 대의원들의 단과대 견해 수렴도 약해진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 가능에 해당하는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로 단과대와 교수회를 연결시키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호: 교수회 규칙에는 대의원, 단과대학의 대의원들은 그 단과대학에서 선거로 뽑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선거로 뽑을 때는 최소한 입후보 하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대의원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하게 되는데 그냥 돌아가며 할 때는 그냥 내 차례가 돼서 온 거니까 가급적이면 내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 김태승: 집행부 문화라도 좀 잘 만들어서.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 강명구: 단과대학 대의원이라면 각 단과대학의 의견 수렴은 물론 기계적 의견수렴에 더하여 맥락까지 파악하여 회의시 전달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지요. 단순히 중간 도매상처럼 전달기능만 하면 안 됩니다. 맥락과 개인 견해까지 첨부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제대로 된 토론과 교수회의 입장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 이재호: 사실은 그렇게 중간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갖고 오는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곳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호: 그 세대에서 제일 나이가 젊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시대는 간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태승: 지금 패러다임 쉬프트예요. 이 변동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이제 젊은 분들도 고민하고.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식이 사라져 버렸다, 과의 논리 또 개인의 논리 이것만 경쟁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

▶ 김상배: 변화가 굉장히 심한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학과 내에서는 그래도 학과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시대를 지났어요. 뭐 학과 내에서도 개인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학과 회의를 해도 학과 전반적인 뭐를 생각하고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발전을 생각하고 학과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과회의도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세대들은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개인을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직의 앞날을 뭔가 생각하고 하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를 믿느냐 하면 집단 지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회의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모여보자 모여서 디스커션을 해보자 그러면 나와요. 그건 나와. 교수회에서도 교수회 모임을 할 때 대의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게 많은 그런 사항인데 이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오픈해가지고 대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좋은 답변이 나와요. 그것까지는 됩니다.

▶ 나상신: 그건 대의원회니까 그렇고. 대의원회는 아무래도 뭐가 이슈가 되는지를 알고 또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수는 학교의 큰 사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강명구: 그런 변화의 추세가 근자에 들어 급격해진 것은 부인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 세대도 제 앞세대들이 보면 한심한 것이 한 들이었을까요? 로마시대 때 자료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다만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김태승: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 교수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소수자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수회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지.

▶강명구: 맞습니다. 아무리 탁류가 거세도 맑은 물이 샘처럼 줄기 줄기 흘러나오면 언젠가는 맑아지겠지요. 아니 맑아지지는 못하더라도 썩지는 않겠지요. 그런 분들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 용기를 북돋워주어야겠지요. 그런 분들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나상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이지만 상당히 상식적이고 지성인답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어느 학과에나 다 계시긴 하죠. 문제는 공익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국은 그 공익이 무엇인지 애매하고 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밥상머리에서 배웠다고 치고, 지금은 그게 좀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하는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전문 교육은 잘 하는데, 가치판단의 경우에 옳다 그르다라

든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차마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재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적당히 살찌는 게 건강한가?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 대 중



비만의 지표로 쓰는 체질량지수라는 게 있다.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170cm, 70kg이라면  $70/(1.7*1.7)=24.2$  kg/m<sup>2</sup> 이다. 벨기에 수학자 Lambert Quetelet이라는 분이 1832년 Quetelet index를 만들었다. 이 분은 당시 수학자답게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일정한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고, 성인의 체중은 키의 제곱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한 것이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별, 종족별, 질환이 있으면 또 달라지는 값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Quetelet index는 잊혀져 있다가 1908년 보험회사가 사람이 얼마나 수명이 되는지 연구하면서 비만이라는 개념을 생명표에 도입하면서 키와 체중에 따라 건강한 체질량지수가 있고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병이 잘 생기기 쉬운 사람인지 아닌지, 오래 살 것 같은 지 아닌지 아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아주 중요한 지표였을 것이다.

시간은 다시 흘러 1972년, 앤셀 키즈(Ancel Keys)라는 미국의 생리학자가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체질량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분은 Seven Countries Study라는 연구를 통해 포화지방-콜레스테롤-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밝히고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꿔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다고 한 유명한 분이다. 1972년 한 논문에 비만의 지표로서 Quetelet index를 소환해서 사용하면서 새로운 이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라고 하자고 하였다.

비만은 본래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종에서는 체질량지수 18.5-24.9를 정상으로 하고, 25.0-29.9를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18.5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분류한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인종에 따라 키와 체중의 상관성이 달라서 아시아인종에서는 25.0만 넘어도 비만과 관련한 질병(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비만을 25.0 이상으로 정의하고 23.0-24.9 사이는 과체중으로 하자고 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 나라마다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은 25를 보통 사용하는 편이고, 어떤 나라는 27.7을 쓰고 어떤 나라는 서양처럼 30을 쓰기도 한다.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 비만한지 아닌지 달라지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한다.

체질량지수를 비만의 지표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다. 체중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도 있지만 근육이나 뼈도 있다. 운동선수처럼 근육이 많아도 체질량지수가 높을 수 있다. 지방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근육은 대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건강에 해로울까 의심이 든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똑 같은 키 170cm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70kg부터 비만 관련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80kg이어도 문제가 전혀 없기도

한 것의 문제가 있다. 즉, 역학연구에서 평균적인 체질량지수와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개인 수준으로 내려가보면 체질량지수가 얼마인지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체질량지수와 사망률의 상관성을 분석해보면 U 자 모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저체중일 때 오히려 사망 위험이 더 많이 올라가고 체중이 좀 나가는 경도비만(25-27 정도)일 때 제일 사망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으로 고도비만이면 사망위험이 높기는 하다. 저체중일 때 증가하는 사망원인은 호흡기질환이 많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질병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체중이 좀 나가는 경도비만에서 제일 잘 버틴다. 폐렴이나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도 그렇다. 이런 걸 비만역설(obesity paradox)라고 한다. 중년에 체중이 좀 나가면 고혈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좀 올라가지만 중증 합병증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체질량지수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다. 비만을 좀더 정확히 평가하려는 노력으로 복부비만을 쓴다. 대사적으로는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 즉 복강내지방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재서 비만도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여자는 85cm가 넘으면 복부비만으로 하자는 것이다. 남자 85, 여자 80cm 미만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것도 키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160cm 남자와 190cm 남자가 동일하게 허리둘레 90cm를 기준으로 복부비만을 정의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주장이다. 그래서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값을 쓰자는 의견이 있고, 남녀 모두 허리둘레(cm)를 키(cm)로 나누어서 0.

5가 넘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다. 키가 160cm이면 허리둘레 80cm가 넘으면 복부비만이고 키가 180cm 라면 90cm가 기준이 된다.

비만이 있으면 찾아오는 문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란 개념인데, 복부비만이 장기간 지속될 때 대사이상이 찾아오고 혈압, 혈당, 지질에 이상이 온다는 것이다. 혈압은 130/85mmHg 이상, 혈당은 100mg/dL 이상, 혈중 중성지방치는 150mg/dL 이상,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 40, 여자 50 이하(!)로 나오면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보고 이런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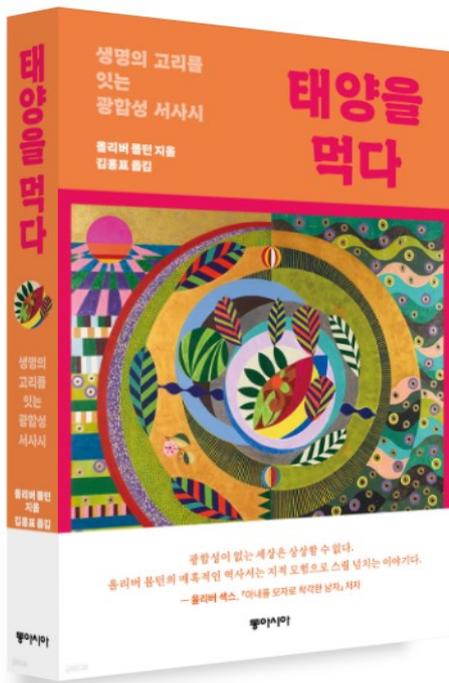


저서  
소개란

## 태양을 먹다 (생명의 고리를 잇는 광합성 서사시)

(역자 김홍표, 약학대학 약학과)

김홍표 역 | 동아시아 | 2023.04.19.



한 해가 시작하고 150일에서 180일 사이 북반구 활엽수 잎이 만개한다. 5월에서 6월이면 뿌리박은 땅 면적(제곱미터) 약 여섯 배 넓이의 나뭇잎이 하늘을 향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파랑과 빨강 가시광선을 흠뻑 받아들일 최대 표면적을 과시한다. 과학자들이 잎 면적 지수(leaf area index)라고 부르는 값이다. 대신 초록빛 가시광선을 반사하는 덕택에 나무가 쓴 관(冠)은 온통 갈매빛이다. 오월은 푸르고 나무들은 자라고 그사이 틈새로 쏟아지는 빛을 행여나 농칠세라 풀과 덩굴식물도 서둘러 고개를 내민다.

땅 아래에서도 분주한 일이 벌어진다. '조직의 견고함을 부여하고 아래쪽으로부터 영양소를 끊임없이 끌어 올림으로써' 관다발식물은 그야말로 하늘로 솟구쳤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공기를 뚫고 자란다. 그들은 태양과 만나는 지구의 경계를 바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끌어올렸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광자(光子)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식물은 지구가 태양의 한

행성임을 잊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무장하였다.

다 고생대 데본기에 벌어진 일이다. 동물 소비니즘에 익숙한 우리는 약 5억4천3백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덕에 동물 화석이 크게 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끼, 고사리, 그리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즐기와 기공을 발명하기 전까지 물 밖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육상은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식물은 흙을 붙들어 강둑을 만들고 물의 흐름을 늦추어 강을 만들었다. 어린잎을 먹는 곤충이 날개를 퍼덕이는 사이 초식 동물을 쫓아 대형 육식 동물이 숲으로 들어왔다. 잎은 태양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듬뻍 받아 지구를 먹여 살린다. 식물이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거의 없는 이산화탄소를 '먹잘 것'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태양 에너지는 그냥 지표면을 잠시 데우고 말았을 것이다. 세균의 등짝이나 잠깐 데우고서 차고 광활한 우주로 햇빛이 흩어졌을 거란 뜻이다.

8개 행성을 거느린 태양은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다. 그렇기에 햇빛은 곧 별빛이다. 식물은 그 별빛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우리는 나락을 까불어 먹는다. 우리는 모두 태양을 먹는다.



소식

## 교수회 소식

### 2023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환영간담회 개최

5월 15일(월) 및 17일(수) 오후 1시30분 율곡관 263호 교수회 사무실에서 2023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재호 의장, 호정화 총무를 비롯하여 양일간 신입교원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간단한 상호 소개의 시간을 비롯하여 근황을 공유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신입교원으로서 느끼는 학교 방침 및 교수 지원, 강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수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교원들은 업무용 컴퓨터 지급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필수영어강의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교수회에서는 이 사안들의 개선에 힘쓰기로 하였다.

### 교수회 제 128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5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교직원식당 오크룸에서 128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대의원 총 인원 26명중 13명이 참석, 8명이 위임하여 성원되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수회-총장 면담',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교수회 웹사이트 활성화', '신입교원환영회와 박만규 전의장 감사패 전달', '뉴스레터 5호 발행' 등에 대한 보고와 '연구실적 상향 조정' 및 '신입교원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대학평의원회 소식

가. 개방감사 선임 ; 임기 3년의 개방감사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으로 의대 김대중 평의원과 법전원 조지만 평의원이 참석하여 개방감사 후보 추천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평의원회 의장 선임 ; 관례에 따라 이재호 교수회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2022년 결산감사 ; 대학과 병원의 2022년 결산보고를 듣고 자문하였다.

라. 건물 신축 보고 및 자문 ; 학군단 연병장 자리에 AU 첨단 융복합관을 2026년 4월까지 신축(총 사업비 531억)할 계획임을 보고 받았고, 일진관 동편에 2인실 495개 규모의 행복기숙사(총사업비 490억 중 440억을 사학진흥재단에서 부담 후 기숙사 운영비로 상환)를 2028년 2월에 개관할 계획에 대해 자문하였다. AU첨단 융복합관 건립으로 노후한 서관, 동관, 화공실험동, 토목실험동의 이전과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며 행복기숙사의 개관으로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기숙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위원회: 책임편집 최영화

김홍표, 박대찬, 박영준, 박재연, 예영민, 오동석,  
이규인, 이홍재 정태선, 최영화, 호정화